

## 광주시, 동북댐 저수율 저하에 따른 비상체계 가동

**다량급수처 자율급수 조정...생활·공업 용수 절수 추진**  
**동북댐 적정 수위 유지 위한 수돗물 생산량 조정 등**  
**물 절약 위한 광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절실**

광주시는 최근 지속되는 가뭄과 강수량 부족으로 동북댐 저수율이 낮아짐에 따라 비상급수대책을 추진한다.  
 앞으로 많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광주·전남지역 가뭄 해갈이 어렵고, 지난해말부터 지난 6월까지 강수량을 적용할 경우 동북댐은 2023년 6월, 주암댐은 2023년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번 비상급수대

책은 동북댐과 주암댐 용수의 정수장 간 호환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마련됐다.  
 지난 9월 봉선배수지가 완료됨에 따라 동북댐 생산량을 감축할 수 있게 돼 동북댐과 주암댐의 사용가능 일수 편차를 줄이는 생산량 조정을 실시한다.  
 가뭄에 따른 선제적 대비를 위해 월 1만톤 이상 수돗물을 소비하는

다량급수처에 대해 물 절약 실적을 집중 관리하며, 관리부서간 협의를 통해 지하수 및 중수도 등 물 재이용 활성화와 수돗물 사용량 절감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유수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노후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 누수탐사를 강화해 땅으로 스며드는 수돗물을 줄이고, 긴급순회점검을 통해 상수도관 인접공사 손괴

방지로 낭비되는 수돗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개 구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방송 등을 통해 각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물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런 선제 대응은 재난상황에서도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공급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평상시 수돗물 아껴 쓰기 실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양변기 수조에 물 채운 페트병을 넣거

나 몰아서 세탁하기, 샤워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등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물은 절약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일 지속되는 가뭄 및 부족한 강수량으로 인해 광주광역시 주요 식수원인 동북댐과 주암댐이 말라가고 있다.  
 올해 마른 장마와 마른 태풍으로 두 댐의 저수율은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상태로, 10월이 지나면 갈 수기에 접어들게 돼 다량의 강우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10월4일 기준 동북댐 저수량은 3천600만㎥로, 예년 대비 48%

수준이다.  
 수돗물 공급 일수는 154일 정도에 불과하며, 주암댐 저수량 또한 1억8천600만㎥으로 예년 대비 58% 수준으로 수돗물 공급 일수는 213일 정도에 그치고 있어 물 부족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두 댐의 사용가능일수 편차가 커 용수사용량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8월30일부터 주암댐 가뭄 '심각' 단계로 격상해 수용가별 수요관리, 대체공급 등 자구노력 이행으로 생활·공업 용수의 20% 자율급수조정을 통한 절수를 추진 중이다.  
 /윤규진 기자

## 기아, 대표 플래그십 세단 'The 2023 K9' 출시



기아는 대표 플래그십 세단 K9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3 K9'을 출시하고 6일부터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아 제공

기아는 대표 플래그십 세단 K9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3 K9'을 출시하고 6일부터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The 2023 K9은 고급감을 강화하는 신규 사양을 기본 적용하고, 일부 선택 패키지에 고객 선호 기능을 추가해 상품성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이번 K9에 신규 사양인 메탈 페달과 차량 내외부의 미세 먼지와 세균을 더욱 효과적으로 걸러주는 항균 처리 고성능 콤포 필터를 전 트림에 기본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인기 품목을 조합한 '베스트셀렉션 I' 패키지에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추가해 더욱 강화된 플래그십 세단의 하이엔드 감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베스트셀렉션 I' 패키지는 새로 추가된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포함해 ▲모니터링 팩 ▲컴포트 팩 ▲19인치 휠&타이어 ▲헤드업 디스플레이 ▲AWD로 구성되며 3.8 가솔린 및 3.3 가솔린 터보 모델의 플래티넘 트림에서 선택 가능하다.

기아는 차량을 스크래치로부터 보호하는 실내의 차량 보호 필름 패키지도 전용 커스터마이징 상품으로 신규 운영한다.  
 패키지 선택 시 차량의 ▲전면 범퍼 사이드 및 하단 ▲후면 범퍼 사이드 및 상단 ▲사이드 미러 ▲도어 스템 ▲전·후석 도어 중앙부와 실내 디스플레이에 보호필름이 부착된다.  
 The 2023 K9의 가격은 3.8 가솔린 모델 플래티넘 5,772만 원, 마스터즈 7,215만 원이며, 3.3 가솔린 터보 모델 플래티넘 6,420만 원, 마스터즈 7,687만 원이다. (\* 개별소비세 3.5% 기준)  
 한편 기아는 The 2023 K9의 출시와 함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고객을 배려하는 다양한 멤버십 서비스를 마련, 플래그십 세단 이상의 만족감을 선사한다.  
 먼저 축구계의 전설이자 2002 월드컵 주역인 최진철 감독과 함께 자신의 위치를 묵묵히 지키는 리더의

모습을 담은 TV 광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사회를 이끄는 리더들의 철학을 공유하는 기존 K9의 캠페인(Master's way)을 계승하면서 K9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선보인다.  
 또한 K9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프리미엄 초청 프로그램인 '임진한 프로와 함께하는 K9 골프 클래스(11월)', 'K9 크리스마스 쿠키 클래스(12월)'를 운영해 K9만의 특별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The 2023 K9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임진한 프로와 폴라보한 한정판 골프화를 제공한다. (\* 10월 31일까지 계약한 고객 중 12월 내 출고 완료한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직구매 고객)  
 기아 관계자는 "The 2023 K9은 더욱 고급스러워진 상품성으로 정통 플래그십 세단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며 "리더의 차에 걸맞은 품격 있는 멤버십 서비스와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보다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 전남, "곰솔림 종합방제로 재해 대비한다"

2023년 5개 지역 21.8ha 선정돼 국비 6억 확보

전남도는 산림청의 2023년 해안가 우량 곰솔림 종합방제 사업 대상지에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변 등 5개 지역 21.8ha가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8월 현장 심사를 통해 완도 신지명사십리해변, 신안 대평해변, 완도 금일읍 일원, 고흥 대전해수욕장, 진도 임회지구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숲을 선정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병해충방제, 토양이화학성 개선, 수세회복처리 등 곰솔림 경관보전 및 생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방풍 효과는 해안 숲의 폭과 밀도에 비례한다. 수간이 고르게 분포한 방풍림의 경우 수고에 비례해 감풍 범위가 증가하고, 감풍범위는 일반적으로 수고의 6-30배에 이른다.  
 특히 해안가 우량 곰솔림은 나무의 줄기, 가지, 잎 등이 풍속을 줄여

조풍으로 인한 간척농지 피해를 줄이고 해일과 풍랑 등으로부터 해안 마을을 보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성된 해안가 우량 곰솔림 중 진도 관매도 해안숲, 여수 방죽포 해변 해안숲, 신안 증도 우전해변 한반도 해안숲 등은 방풍림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문미란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해안가 경관보전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숲, 도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행복을 주는 숲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해일로부터 해안가 마을과 농경지를 지키고 아름다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70억 원을 들여 60개소, 415ha의 해안가 곰솔림 종합방제를 추진했다.  
 /윤규진 기자

**명성은 특별한 음식에서 나옵니다!**

차별화된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